

연중 제24주일 미사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

작년 초에 살렷 이윤일 성당에 발령을 받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 본당 신자들 간의 관계회복을 하고자 피정강의 및 강론에서 아직 용서와 화해가 안되는 형제자매님들에게 집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성령세미나 등을 통해서도 이런 용서와 화해의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와서 그렇게 관계가 좋지 못했던 그 사람과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까지 용서가 안되며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live Staples Lewis는 “용서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누구나 생각하지만, 이는 자신에게 용서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일 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들에게 베풀라고는 하지만 정작 본인이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용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용서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임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우리 매형이 교통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게 한 가해자를 온전히 용서하는데 6년이 걸렸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용서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가 당사자가 있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용서해야 할 누군가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정말 세상을 잘 사신 분이시지만 앞으로 그런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리라 장담을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 나를 놀리거나 괴롭혔던 학생 및 불량배부터 반 친구들 앞에서 나를 망신을 준 선생님, 학창시절 이웃집 자녀들과 비교하며 꾸짖거나 야단을 쳤던 부모, 늘 자기 것을 두고 싸우는 형제 자매, 자신의 비밀을 누설한 친구, 비즈니스를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준 사람, 눈치만 보며 어떻게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받아 가려는 직원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우, 자신의 이야기를 부풀리며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신자들, 성직자 수도자로부터 따뜻한 말보다는 자비심이 없는 말로 상처를 들었을 때 등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를 우리는 계속해서 받으며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고통을 준 상대에게 자꾸만 용서를 하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처럼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를 해 주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계속 반복된 잘못을 했든 심지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용서하십니다. 그 숫자만큼 용서하면 더 이상 용서를 안해도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끊임없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왜 그렇게 용서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육체적, 영적, 관계적으로 나에게 이롭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실험에서 피험자들에게 자신을 속인 사람 또는 모욕하거나 거부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고 심장 박동수, 혈압,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원한의 감정을 계속 유지하거나 용서해 주는 것을 마음에 그리도록 했는데 용서를 떠올린 사람들은 평온함을 느끼고 자신을 잘 통제하게 되면서 심장 박동 수와 혈압이 낮아진 반면, 원한의 감정을 유지한 사람들은 육체적 긴장과 함께 분노와 슬픔을 더 강하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우울증, 심장 마비, 만성 요통, 그리고 암 발생위험률까지 높아진다고 밝힌 연구도 있었습니다.

용서에 실패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단절될 수 있습니다. 용서에 실패하면 다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막을 치고 혼자라는 고립감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의미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통이 있다면 치유받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동정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우선 자신에게 이롭다고 했습니다. 사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죄책감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해 준다는 것은 후회와 수치스러움의 감옥에서 그들을 풀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치유해 주고 더 좋은 미래를 희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 용서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천국이 따로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로 미루어 볼 때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는 미움과 증오, 복수와 무자비가 성행했고 또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도 그렇게 거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이웃, 나아가 인류를 위해 용서를 확장하고 평화를 증진하여 이 세상에 작은 천국이라도 건설하자고 우리를 매 순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며, 사랑보다 미움이 강하다는 진리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하는 마지막 이유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수호성인인 요한 보스코 성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은 어린

시절 욕을 하며 나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꿈을 꾸니다. 거기서 소리지르고 싸우면서 못하게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리더로 세우며 “너는 주먹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친절로 이 친구들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른이 되어 요한 보스코 성인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며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수도회 두 개를 창설합니다. 그 당시 훈육방법과는 달리 어떤 편태나 체벌도 금지했으며, 어린아이들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과 다정함, 인내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대하시니 어린이와 청소년 또한 마땅히 그렇게 대접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친절과 사랑으로 죄인들을 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거나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느님의 자비에 희망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보스코 성인이 청소년들에게 징벌의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느님을 증거해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용서를 할 때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 알려 줄 수 있습니다. 곧 용서함으로써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복음 선포이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방법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의 비유를 통해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치졸한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시겠습니까? 행여나 계속 나에게 작은 잘못이나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그에 따른 댓가를 생각하며 계시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1독서의 집회서 말씀을 떠 올리겠습니다.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네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네가 간청할 때 네 죄도 없어지리라.”

코로나로 많은 대면이 어려운 이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안부의 소식과 함께 용서와 화해를 청할 대상자에게 내 마음을 좀 더 열 수 있는 용기를 이 미사에서 청하도록 합시다.